

# 물류의 기본은 포장표준화

박기봉 / 월간 물류정보 기자

물류는 물동량의 흐름을 말한다.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물류의 기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Link(도로, 철도, 항만 등)와 Node(화물터미널, 배송센터, 창고 등)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물류관리는 하나의 개별활동이 아닌 통합관리에 의한 시스템 운영(SCM : Supply Chain Management)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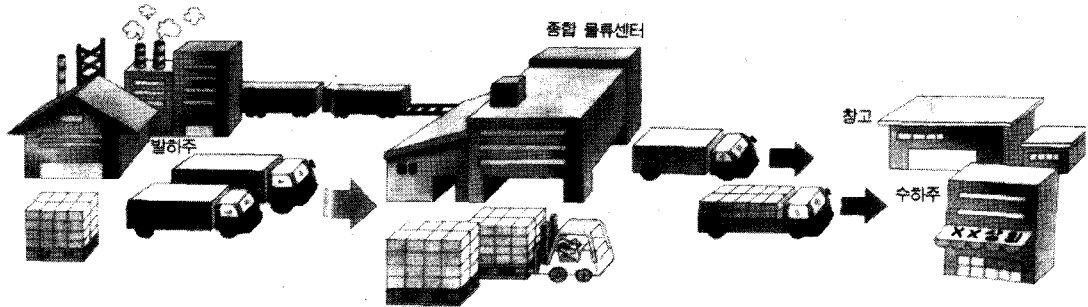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물류환경은 이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구조의 '물류화'는 고비용, 고지가, 고임금 등 구조적 모순점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물류합리화를 위한 표준화, 공동화, 정보화가 촉진되지 않아 물류비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물류비' 즉, 비효율적인 물류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물류표준화다.

물류비용이 GDP의 14.5%에 이르고 있다는 발표가 연초에 있었다. 올 해 기업물류비는 총 6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길에 뿌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10조원을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엄청난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2000년 이후가 될 것이다.

단기간에 물류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 국가나 기업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경제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류표준화, 공동화 등 '물류인프라'를 확충해 단기간에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물류표준화는 말 그대로 물류 각 분야의 기기와 설비를 하나의 표준규격아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KS로 지정하고 있는 물류부문 규격은 274개이다. 그 중에서도 포장 치수와 팔레트 규격의 표준화는 물류표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표준화의 대상이 트럭적재함, 보관 랙, 하역시설, 컨테이너, 컨베이어 등 모든 물류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설비의 표준치수는 바로 팔레트 규격에 따른 표준화된 포장치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포장과 팔레트는 표준화율이 가장 더딘 부분중의 하나이다. 상공회의소가 지난 '95년 물류설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류표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 기업의 45%가 포장치수의 표준화를 꼽았으며, 10%는 팔레트 규격을 표준화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포장과 팔레트가 물류표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포장과 팔레트 표준화율이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속적인 표준화 노력이 없다면 전체 물류효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포장과 팔레트가 가지고

있는 벨레야 땔 수 없는 '함수관계' 때문이다. 일관수송을 가능케 하는 팔레트는 포장단위에 따라 효용성 있는 도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된다. 지금까지 물품을 운반할 때 포장은 단순한 보관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었다. 오히려 팔레트에 적합하지 못한 치수로 인해 물류비 지출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표준팔레트에 적합한 포장치수를 사용할 경우 날포장에 의한 번거로운 하역작업을 없앨 수 있어 물류합리화를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표준팔레트의 선정은 물류와 포장을 연결시켜 주는 기본적 단계이자 포장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KS포장규격과 표준팔레트의 도입은 원활한 물류활동과 표준팔레트에 의한 단위화물적재방식(ULS : Unit Load System)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포장과 팔레트 표준화는 ULS의 전단계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ULS는 물품을 일정한 중량이나 크기로 단위화시켜 기계화된 하역과 일관된 수송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화물은 크기, 형태, 중량 등이 서로 다르고 그 종류도 다양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동이 많으므로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ULS를 통한 물류표

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ULS는 물류를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ULS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송장비의 적재함 규격, 운반·하역장비, 창고시설, 거래단위의 표준화가 선결과제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포장과 팔레트의 규격이다. 또한 포장과 팔레트 규격은 ULS 단위화물 구성의 기본단위로 표준화된 포장치수 규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단위화물 치수를 중심으로 모듈체계를 갖춘 팔레트와 분할계수의 치수로 표준화된 포장규격을 사용하면 대칭이나 배수계열 치수인 기차의 화차나 트럭 적재함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어 적재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공차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내업체들은 이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ULS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포장과 팔레트라는 지적도 있다. 주객이 바뀐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 해 포장 및 팔레

트 업체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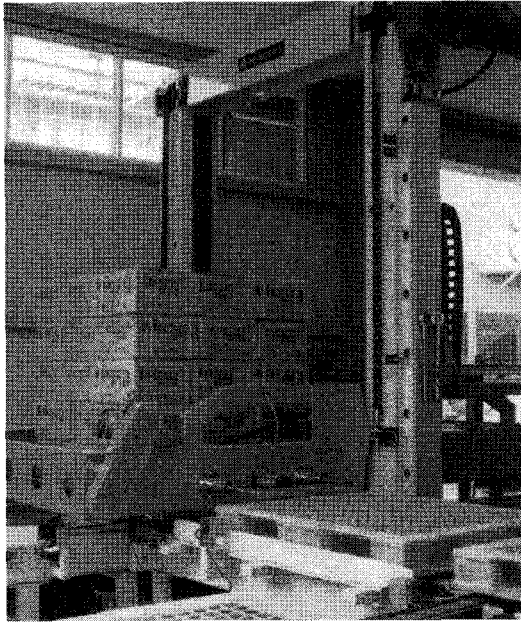
포장업체의 경우 ULS가 물류합리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포장업체 독자적으로 포장치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포장치수를 결정할 때 표준화 치수보다는 제품의 크기를 고려한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팔레트 업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업체 대부분이 표준팔레트를 생산하면서도 주문에 따라 다른 치수의 팔레트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즉 주문자에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화 되지 않은 포장재와 팔레트를 생산함으로써 ULS통칙이 정한 분할 및 배수 모듈체계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생산현장에서 사용되고 결국 일관수송체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늘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포장업체와 팔레트 제조업체들이 표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물류표준화를 앞당기기위해 올 해 325



“  
 포장업체의 경우  
 ULS가 물류합리화의  
 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치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포장치수와 물류설비와의 관계를  
 계열화, 모듈화로…  
 ”



역원의 표준화 지원금을 마련했다. 또한 팔레트 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팔레트 구입자금 45억원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도 건교부와는 별도로 제조업체·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장표준화 120억원, 표준팔레트 2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류표준화를 앞당기고 ULS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의 '물류화'를 추진하고 포장치수와 물류설비와의 관계를 계열화, 모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KS포장규격 지정을 위한 심사 항목에도 팔레트 규격을 고려한 물류표준화 사항을 추가하여 포장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업체스스로도 포장규격에 따른 제품개발기법을 도입해 신제품개발과 함께 팔레트 규격을 결정하고 겹포장, 속포장을 표준화해 제품을 생산하는 표준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 좋은 토양과 적당한 수분, 햇빛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

원책이 분명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포장, 팔레트 업체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ULS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물류표준화는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과 팔레트는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포장과 팔레트 규격은 수송, 보관, 하역 등 물류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류합리화를 위한 지원이 포장과 팔레트에 집중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원금만 있고 이에대한 표준화 노력을 업계 뭉만으로 돌린다면 물류표준화는 단시간에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 아직 국내기업들이 물류표준화를 주도할 만큼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것이 아직 초보 단계인 물류표준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OECD가입으로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국내진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업체들도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국내 물류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물류표준화는 물류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포장과 팔레트 표준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대책은 SOC투자와는 달리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므로 표준팔레트 사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류표준화는 물류비 절감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K]